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며...



장민식 다투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나는 가끔 TV 출연자들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 보며 나도 같이 목이 잠기고 눈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곤 한다. 이는 아마도 우리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위해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을 즐겨하신 분,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신 억척같은 분, 그러시면서 훌륭하게 키워내신 자식들의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만 보시는 분,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뒤늦게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고마우신 어머니가 어느 날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는 의사인 동생의 소리를 듣고, 그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병원에 갔지만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 고생고생하신 어머니께 대한 주님의 은총이 왜 하필이면 이런 것인가?' 라는 안타까움과 원망에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병의 진단을 받고서도 어머니는 마치 당신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며 도리어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하신 그 모습이 6년 전 여름이었다.

6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나빠지셔서 이제는 혼자서 거동도 못 하시는 것은 물론 주위의 힘을 빌려야만 식사하실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어머니의 파킨슨병은 초기에 움직임이 약간 둔할 뿐이었는데, 병이 진행되며 점차 근육이 굳어가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꾸 넘어지며 최근에는 약의 부작용으로 치매 증상과 유사한 심한 환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근육이 굳어가는 탓인지 가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하시고 특히 음식을 넘기지 못하거나 사래가 들러 잘 드시지 못하여 체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가뜩이나 잘못 드시고 고생만 하셔서 뼈가 약할 대로 약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비롯한 골절 수술만 3차례, 피부가 찢어져 여러 번에 걸친 봉합 수술을 하였다. 하도 많이 넘어져 어머니의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시퍼런 멍과 혹이 가시질 않았다. 어떤 때에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순식간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자꾸 넘어지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시지만 연로하신 아버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그로 인해 또 큰 부상을 당할지 모르니 요양시설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아 드리지 못하고 며느리인 나의 안식구는 암 투병중이라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처지가 못 되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은 마치 고려장을 치르는 것 같아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증세는 심해져 갔

고 집안 식구들만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또 다시 팔을 크게 다쳐 수술하여야 하는 상태가 발생되고 말았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 도움을 받고 있던 간병인에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요양원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간병인들 모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말라고 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극력 반대하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모셔 왔지만 또다시 다치시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머니의 곁에서 돌보는 연로하신 아버지는 힘도 없으시고 또한 순발력도 없어 어머니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괴로운 어머니는 요양시설에 가시기를 강하게 요구하셨다. 요양시설에 모시기로 결심을 한 다음 어머니를 모시기에 우선 시설이 좋은 곳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요양시설마다 비용과 시설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던 중 성당에서 레지오 활동을 같이 하는 형제가 집에서 간병인을 두고 환자를 보살피다 요양병원에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형제에게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형제의 환자를 모신 요양병원은 쓸데없는 과잉 진료와 여러 환자를 한 사람의 간병인이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환자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쓸데없는 과잉 진료로 인해 약속된 요양비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어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도 신청하였다. 여러 번에 걸친 방문조사와 전화조사 등을 거쳐 다행히도 어머니는 1등급 판정을 받으셨다. 요양시설을 알아보던 중 어머니를 주기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노인 돌보미 선생님이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소개 시켜주었고 그곳을 방문하여보니 시설이 깨끗하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곳에 모시기로 하였다. 그곳은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계신 가정집 같은 비교적 깨끗한 곳이어서 마음이 놓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은 시에서 극빈자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어머니는 그곳에 입소할 자격이 되지 못하였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 어머니도 계실 수 있을 거라 하였기 때문에 모실 수 있었다. 그러나 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시의 정책상 어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게 되었다.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린 후 항상 곁에서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분이 계신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지만 뭔가 허전하고 어머니가 잘 적응하실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불안한 생각이 적중했는지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원하셨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집에서 자유스럽게 생활하시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공동생활을 하여야 하니 다른 할머니들과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그러나 실상은 요양시설의 운영비가 작아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러 할머니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으니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 할머니를 돌보는 데 많이 소홀한 면이 있었음을 알았다.

결국 다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로 하였고 그때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난 시기였

다. 어머니가 공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시고 또 평생 지키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성당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괴로워하시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그 괴로움을 덜어 버리시려고 애쓰셨다. 집에 계시실 때 봉사체를 위해 오시는 신부님을 기다리며 아주 즐거워하였고 구역 신자들이 찾아와 같이 기도드릴 때에는 한 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교구의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 여러 군데를 소개 받아 전화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정원이 다 차서 어머니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 뿐이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일대의 성당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정원이 다 찼고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자리가 좀 있었지만 그곳에는 모시고 싶지 않았다.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어서 여러 지인들과 아는 수녀님을 통해 알아보고 대기 명단을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다. 부천에 있는 성가요양원에서 마침 자리가 하나 났으니 모시고 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그 요양원은 이 병을 앓기 전까지 어머니가 레지오 활동을 하시면서 매주 봉사를 다녔던 곳이었다. 어머니가 매주 봉사를 다니시던 그곳에 이제 어머니가 가시게 되다니... 참으로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나도 기쁘고 어머니는 더더욱 기뻐하셨다.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가니 어머니는 그곳의 낮은 풍경에 많이 흡족해 하셨고 그곳에 계시는 수녀님들을 보며 매우 안심하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놓였다.

성가요양원에 모신 지 이제 3달이 되어 가는데 어머니는 처음에 잘 적응하시지 못하고 병의 부작용으로 환시 증세가 심하여 처음에는 수녀님들도 당황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어머니는 많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다.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는 생각에 천주교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20%가 되어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의료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직접 혜택을 받는 나는 여러 요양기관들을 찾아보며 요양기관별로 서비스의 수준과 시설의 수준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 지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제도의 시행에 부작용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덕분에 나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부담에서 다소 자유스러워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점점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을 국가에 떠맡기고 자식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들이 외면되어진다면 평생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애쓰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욱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쪼록 어렵게 시행된 이 제도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우리들의 부모님들께 커다란 삶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하신 말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신 삶을 사시길 기도해본다.

